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완만한 인플레이 또 다른 징후: 인건비 상승세 예상보다 둔화
- WSJ: 미국 소비가 식기 시작한다
- Bloomberg: 연준, 5월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 Bloomberg: 미 사무실 사용률, 팬데믹 후 처음으로 50% 진입

[글로벌 경제]

- WSJ: IMF, 세계 경제 전망 상향... 인플레이 둔화와 중국 재오픈 탓
- WSJ: 중국 경제 활동, 소비자가 반등 주도한다
- WSJ: 중국도 태양광 패널 기술 수출통제 제안... 미국에 맞대응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세계 해운업계, 새 선박 쌓이는데 경기침체에 화물 수요는 냉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원격 근무 일자리 공고 줄고 있다
- Bloomberg: 해고 늘면서 '조용한 사직자'도 늘다
- WSJ: Whole Foods, 공급업체에 "인플레이 풀리니 가격 낮춰달라"
- Bloomberg: 세계 메모리 제조 업계 긴장시키는 삼성 빅 스텝
- WSJ: Caterpillar, 강력한 수요로 매출 20% 증가
- WSJ: Exxon, 5백 57억 사상 최대 연간 수익...치솟은 유가 덕
- WSJ: GM 4분기 수익 급증...공급망 개선 덕
- The Economist: 달아오르는 AI 연구 경쟁, 과연 승자는?

[보고서]

- HBR 보고서: 팀의 집중력을 높이는 리더의 7가지 비결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Labor Costs Trail Forecasts, Adding to Slower Inflation Signs

완만한 인플레이 또 다른 징후: 인건비 상승세 예상보다 둔화

-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고용 비용 상승세는 예상보다 완만해 인플레이가 둔화하는 신호를 보였다. 이번 주 연준의 낮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 임금과 수당을 측정하는 고용 비용지수가 지난해 4분기에 1% 상승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인건비는 6개 분기 연속해서 최소 1%가 늘어나 기록이 집계된 1996년 이래 기록적인 행진을 보인다.

- 이는 임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과 일치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중단할 정도의 둔화세는 아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U.S. Consumer Is Starting to Freak Out 미국 소비가 식기 시작한다

- 소매 구매가 지난 4개월 중에 3개월 동안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집세와 이발료, 각종 청구서를 비롯한 서비스 지출이 정체되어 거의 1년 동안 최악의 월간 상황이었다. 작년 기존 주택 판매도 모기지율이 올라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낮았다. 자동차 판매도 지난 10여년 동안 최악의 해였다.
-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어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대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ed Points Toward a Pause in May After Run of Hikes Sinks In 연준, 5월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 둔화 신호가 계속 나올 경우 3월 회의 이후 금리 인상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준 관리들은 구체적으로 5월 2일부터 양일간 회의 때까지 1월, 2월, 3월 경제 지표를 가질 수 있는 기간, 즉 3개월을 주시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내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통해 0.25% 올려 현재 4.5% 금리가 4.75%가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Offices Reach 50% Occupancy for First Time Since Pandemic Hit 미 사무실 사용률, 팬데믹 후 처음으로 50% 진입

- 미 주요 도시 사무실 근로자의 반 이상이 지난주까지 사무실로 복귀했다.
- 보안 회사Kastle Systems에 따르면 주요 10개 도시 사무실 빌딩 점유율 지표는 1월 15일 끝나는 주에 0.9% 늘어난 50.4%를 기록했다. 모든 도시를 포함할 경우 40%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은 47.5%, 샌프란시스코는 45.9%, 텍사스 오스틴은 무려 68%, 반면에 실리콘밸리가 포함된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41%에 그쳤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IMF Upgrades Outlook for Global Economy as Inflation Eases and China Reopens

IMF, 세계 경제 전망 상향... 인플레이 둔화와 중국 재오픈 탓

- 당초 IMF의 예상보다 글로벌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는 3가지. 복원력이 강한 수요, 인플레이 둔화, 중국의 재오픈이다.
- IMF는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을 지난 2월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에는 3.1%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3.1%는 지난해 성장률 3.4% 보다는 낮은 수치다.
- 이 기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Pierre-Olivier Gourinchas “올해도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지만 성장이 바닥을 치고 인플레이가 둔화하면서 전환점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 기사

IMF 보고서 원문

WSJ: China's Consumers Drive Rebound in Economic Activity

중국 경제 활동, 소비자가 반등 주도한다

- 한마디로 제조 분야는 확대 영역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와 서비스가 1월에 크게 개선되어 확대 영역(expansion territory)으로 반등했다는 것.
- 해외여행 온라인 부킹이 치솟았다. 국내 관광 수입도 (코로나 발생 이후 여행 제한이 해제된) 구정 기간 동안 급증해 지난해 35%에서 73%로 회복되었다. 철도 이용객 지난 2019년 수준의 83%였다.

WSJ 기사

WSJ: New China Rule Threatens to Disrupt U.S. Solar Ambitions

중국도 태양광 패널 기술 수출통제 제안... 미국에 맞대응

- 중국이 솔라 제조 핵심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미국 측이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진흥시키려는 시도가 지체될 수 있다고 전

문가들은 밝혔다.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태양광 패널의 일부인 ingots와 wafers 생산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중국은 현재 전 세계의 이 두 부분의 생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

연합: 세계 해운업계, 새 선박 쌓이는데 경기침체에 화물수요는 냉각

- 전 세계 해운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물류 적체를 거치면서 주문했던 선박들이 향후 수년간 줄줄이 나오지만, 경기침체로 화물 운송 수요는 오히려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운 조사기관인 드루리와 알파라이너가 집계한 해운업체들의 주문 선박은 900척 이상에 달한다. 세계 최대 선사인 MSC는 기존 선박 721척에 더해 133척을 주문한 상태이며, CMA-CGM과 에버그린은 각각 77척, 49척을 주문했다.
- 전체적으로 올해 인도되는 선박의 운송능력만 해도 현재 전 세계 운송 능력(2천480만 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5.6%에 해당하는 140만 TEU에 이르고, 내년에는 200만 TEU, 2025년에는 210만 TEU가 속속 추가될 전망이다.

아래는 블룸버그 통신의 도표들을 첨부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Bloomberg 기사 원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 Job Market for Remote Workers Is Shrinking
원격 근무 일자리 공고 줄고 있다

- 이제 미 고용주들 중에 재택근무를 제안하면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고용주들이 줄고 있다. 즉, 해당 공고가 줄고 있다. 몇개월 전만 해도 재택근무 키로 결정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난달 LinkedIn에 게시된 채용공고 중에 원격근무 숫자는 13.2%로 지난해 3월의 20.6%보다 크게 줄었다. 일자리 채용 업체인Indeed.com,

ZipRecruiter도 해당 공고가 줄어든 건 마찬가지다.

- 반면에 해당 수요는 엄청나다. LinkedIn의 구직자 중 52.8%가 원격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Bloomberg: Ranks of Quiet Quitters Climb as Layoffs Mount 해고 늘면서 ‘조용한 사직자’도 는다

- 회사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필요한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자 (Quiet Quitter)가 늘고 있다. 이는 갤럽과 관련 기관들의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 갤럽에 따르면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는 비율은 2년 연속 줄어 단지 32%에 머물렀다. 직원의 18%는 매우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을 신뢰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비율도 지난해 54%에서 46%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Whole Foods Asks Suppliers to Lower Prices as Costs Ebb Whole Foods, 공급업체에 “인플레 풀리니 가격 낮춰달라”

- Whole Foods Market이 인플레가 완화됨에 따라 공급 업체에게 식료품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어주고, 공급 우선권을 주며, 제품을 제때 납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지난 1년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이후, 업계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인플레 압력으로 식료품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 한편 Whole Foods Market은 2017년 아마존에 인수된 이후 물품 가격을 낮추고 더 저렴한 자체 브랜드를 확장하며,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왔다. 경영진은 올해 더 많은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Visit our Website

Bloomberg: Samsung's Power Move Imperils Fellow Memory Makers 세계 메모리 제조 업계 긴장시키는 삼성 빅 스텝

- 세계 최대의 메모리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사이클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메모리 분야 투자 지출과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 없

다고 밝혔다.

- 삼성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 “중장기적 투자”라며, 메모리 다운사이클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메모리 시장이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과잉 확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침체기에 생산량을 많이 줄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 한편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달리 SK Hynix Inc., Micron Technology Inc., Kioxia Holdings Corp. 등의 소규모 경쟁사들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침체라도 겪을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WSJ: Caterpillar Earnings Show Sales Up 20% on Strong Demand Caterpillar, 강력한 수요로 매출 20% 증가

- 건설, 광산 및 에너지 장비 제조 업체 Caterpillar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되면서 20% 늘어난 1백6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발표했다.
- 하지만 제조 원가 상승과 외환 역풍이 분기 수익에 부담을 주면서 영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11.7%에서 10.1%로 떨어졌다.
- 한편 불도저와 굴착기와 같은 건설 장비 분야 매출은 68억 5천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9% 늘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투자도 늘어나며 에너지 및 운송 사업 부문의 매출은 68억 2천만 달러로 늘었다.

WSJ 기사

WSJ: Exxon Posts Record Annual Profit of \$55.7 Billion Exxon, 5백 57억 사상 최대 연간 수익...치솟은 유가 덕

- 미국 최대의 석유 기업 Exxon이 이번 주 화요일 5백 57억 달러의 기록적인 2022년 수익을 발표하면서, 대형 은행, 빅테크, 백신 업체들을 모두 앞질렀다. Exxon을 능가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뿐이었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수요와 고유가를 발판 삼아 Exxon의 주가는 올해 약 80% 상승했다. 고유가는 미국의 석유 회사부터 파이프라인 운영자, 서비스 기업까지 전체 업계의 수익을 증가시켰다.
- 팬데믹 초기 급격한 에너지 수요 감소와 함께 에너지 기업들은 생산과 지출을 줄이고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미국 석유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역사적인 수익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GM's Fourth-Quarter Profit Soared as Supply-Chain Problems Eased

GM 4분기 수익 급증...공급망 개선 덕

- GM은 소비자 압박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어 공장 생산량이 반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0억 달러의 4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4분기 북미지역 차량 생산량은 37% 급증했고, 매출은 28% 증가한 4백 31억 달러였다.
- 한편 GM은 올해 테슬라와 포드에 맞설 여러 신형 EV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테슬라가 주도한 전기차 가격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고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GM은 EV 배터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네바다주 리튬 광산 개발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WSJ 기사

The Economist: The race of the AI labs heats up 달아오르는 AI 연구 경쟁, 과연 승자는?

- 인공지능 스타트업 OpenAI가 내놓은 챗 GPT(Chatgpt)가 출시 5일 만에 1백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알파벳, 중국의 바이두 등도 AI 패권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I의 부상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외면받았던 기업의 R&D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 및 비영리 단체를 막론하고 AI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 특히 Chatgpt가 이끌어낸 “생성적인 generative” AI에 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선두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Chatgpt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중에게 더 부담 없이 공개될 수 있었고, 따라서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얻어 더 빠르게 학습하게 되었다. 더 나은 성능은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다른 AI 모델에 비할 바 없는 이점이 될 것이다.
- generative AI가 더 큰 규모일수록 좋다는 것도 옛말이다. 미래 세대의 AI는 스케일을 키우기보다 더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빅테크가 꼭 장악하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The Economist 기사

[보고서]

HBR 보고서: 7 Ways Managers Can Help Their Team Focus 팀의 집중력을 높이는 리더의 7가지 비결

- 초 자극적(hyper-stimulated)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수의 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60.6%가 하루에 1~2시간도 깊이 집중해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바쁘게 일했지만 생산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 보고서는 리더가 팀의 산만함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도록 격려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1. 일의 목록과 우선순위 정하기: 현재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통 방식을 명확히 하기: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내부 통신 채널의 각 용도를 분명하게 하고, 응답하는 기대 시간을 명확히 한다.

3. 거절을 받아들이기: 직원들이 업무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때 “No”, 거절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 만들기: 불필요한 회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5. 직원들의 일정을 조절해주기: 면담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업무 시간을 분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6. 집중 업무 시간 정하기: 예를 들어 화, 목 오후를 집중 업무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 동안 아무도 미팅을 잡을 수 없도록 해 업무 시간을 확보한다.

7. 직원의 집중 업무 모드를 존중하기: 리더로서 팀원이 자신의 상태를 집중 작업 모드로 설정해두었을 때, 그 시간을 침해하지 않고 선을 지킨다.

- 리더가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지켰을 때, 팀원들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팀은 승리한다.

(번역: 백승아)

HBR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美재무 "인플레이션 잡히면 저물가가 다시 장기적 문제 될 것"

미국이 약 40년 만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면해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낮은 물가가 다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이 전망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경제적 파행이 진정되고 물가가 가라앉으면 지속적인 저물가가 다시 미국 경제와 정책당국에 장기적 도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흔치 않고 어려운 시기를 막 통과하고 있지만,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견인하며 연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던) 1970·80년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물가 상승을 예상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다시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물가 상승 악순환이 이어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